

“교과서 속 무형유산 다채롭게 만나요”

국립무형유산원, 내년 5월 5일까지 특별전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12월 6일부터 2024년 5월 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다양한 무형유산을 알기 쉽게 만나는 특별 전시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무형유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자 교과서에 수록된 무형유산을 소재로 한 상호작용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전시에 이야기를 입혀 관람객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끔 함으로써 전시를 보다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전시는 현실 세계인 ‘교실’과 ‘교과서 속 세상’,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수업을 듣다 잠에 빠진 주인공이 교과서 속 세상으로 들어가 여행을 하며 전시가 전개된다. 먼저, 현실 세계는 사회 수업을 하는 ‘교실’이다. 칠판에 상영되는 무형유산 소개 영상(애니메이션)을 보고, 교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무형유산을 찾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교과서 속 세상’은 3개의 교과서로 구성된다. 음악 교과서에서 만난 아리랑에서는 아리랑의 다양성을 눈과 귀로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아트는 체험자가 아리랑을 들으며 느끼는 바를 화면 속 그림(그래픽)의 색깔과 크기, 속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 포스터

도 등을 자유롭게 조작하며 영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또 체육 교과서에서 만난 탈춤에서는 우리 탈춤에 담긴 익살과 재치를 소개한

다. 직접 재미있게 꾸민 탈을 벽면(스케치 월)에 입체화(3D화)해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영상을 보며 탈춤의 춤사위를 따라하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 교과서에서 만난 전통공예기술에서는 화각 사주함, 나전 구절판 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제작한 공예품을 직접 감상해 보고, 그 재료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마련돼 있다.

체험 외에도 교과서 별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준비해 각각의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전시 기간 중 학교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나만의 무형유산 교과서’ 활동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나만의 무형유산 교과서’는 전시와 연계해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형유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카드 꾸미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 및 단체관람 예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우리의 무형유산이 미래 세대에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악기장 전통 계승·보급 헌신 공로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이영수, 이달의 정음 역사인물 선정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이영수(1929~2017)가 이달의 정음 역사인물로 선정됐다.

1929년 정음시 운동에서 태어난 이영수는 외가의 소개로 조선시대의 마지막 악공인 김봉기 선생을 알게 되면서 1954년 제자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악기 제작 일을 시작했다.

1962년 독립해 인천에 공방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전속 악공으로서 악기를 제작하고 수리했다.

1979년에는 전승공예대전에 항비파를 출품해 입선했고, 1984년에는 거문고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전승 활동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1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2013년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그는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악기장’의 전통 계승과 보급에 평생을 헌신했다. 현재는 아들 이동운(현 악기장 전승교육사)이 후이영수 명예보유자의 뒤를 잇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평생을 악기를 고치고 만들어 살아온 후이영수 명예보유자가 정음



의 높은 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음의 역사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역 곳곳에 숨겨진 역사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악기장은 전통악기를 만드는 공예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정은림 기자

전주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성료

전주대학교 박물관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7개월 간 약 2,500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일 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초·중·고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 작년에 비해 900여 명이 증가한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 소장 유물과 인문학을 연계해 참여자들이 체험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참여력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과 연계해 큐레

이터 직접 체험도 병행했다. 올해는 ‘슬기로운 의·식·주 생활’로 주제를 운영했다.

교육에 참여한 익산공동초등학교 학생은 “우리나라 의식주를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으며, 평소에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서곡중학교 이원형 교장은 “우리 역사 및 의·식·주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 체험 활동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 체험이 지속



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학예실장은 “매년 프로그램 및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 신진예술가 작품 실연 이어져

전주문화재단, 박민지 바이올리니스트·황보석 대금 연주자 공연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3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 선정자 박민지 바이올리니스트와 황보석 대금연주자의 실연과 도전의 공연을 잇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5일 재단에 따르면 먼저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지는 향기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는 ‘Proust Effect(프루스트 이펙트)’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향기에 대한 기억처럼, 소리에도 기억이 있다’는 주제를 기반으로 조향과 연주가 어우러진 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6일 오후 7시 30분 한벽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어 대금 연주자 황보석은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재즈의 만남, 그리고 업사이클링 악기로 연주될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한 공연 ‘즉흥적 발상’을 선보인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폐기물과 예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즉흥적 발상’은 오는 9일 오후 4시 전주국립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Proust Effect 포스터 즉흥적 발상 포스터

재단 관계자는 “이번 2인의 공연을 끝으로 올해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총 6명의 예술가들이 작품 실연을 마치게 된다”며 “실연과 도전을 보여준 2023년의 전주 신진예술가들이 앞으로도 좋은 창작자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Proust Effect’는 전주티켓박스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즉흥적 발상’은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예술회관, 이매창 러브스토리 ‘홀날릴제’ 뮤지컬 갈라콘서트

부안예술회관은 ‘부안마실축제’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주제공연을 ‘홀날릴제’ 뮤지컬 공연으로 재탄생시켜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선보인다.

‘홀날릴제’ 공연은 올 봄 제10회 ‘부안마실축제’에서 개발된 지역 스토리인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 이매창과 유희경의 사랑 이야기를 창

작하여 뮤지컬로 재탄생시켜 선보인다. 본 공연은 도창과 신화 속 바다의 여신인 ‘개양할림’이 사실을 읊는 형태로 진행되고, 출연 배우들이 대사를 주고받으며 라이브로 연주되는 반주에 맞춰 노래할 예정이다.

공연을 위해 극단 까치놀이(대표 이영민)은 총 7곡을 작곡했고, 향유 더 많은 매칭의 시가



가능하다.

음악이 소개될 수 있도록 ‘매칭집’ 출간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티켓예매는 티켓링크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지정 좌석제로 입장권을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다. 예매티켓 수령은 공연 1시간 전부터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